

일주문

법산 스님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보조사성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9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리는 2010 금강산립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0108

갑사 영구대사 추모제
공주 갑사 주지 태진 스님은 10월 30일 영구 대사 및 800여 의승의 뉘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다.

'만해사상과 증생복지' 특강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운 스님은 11월 5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한나라당 강원 당직자 워크숍에서 '만해사상과 증생복지'를 주제로 특강했다.

길상사 독거어르신 돌기 강좌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12월 1일 길상사에서 독거어르신 돌기 강좌 참가자 행사를 개최한다.

삼보조계종 구족계 금강계단 봉행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1월 25일 위봉사에서 해동 스님을 옹사로 구족계 금강계단을 봉행한다. (010)3801-8197

포교사단 지도자연수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1월 20일 흥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포교사단 지도자연수 및 대의원임시포교회를 개최한다.

산업공학회 회장에 조성구 교수
동국대학교 조성구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는 제19대 대한산업공학회장에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초빙 24일까지, HK 불교학 전공 관련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인문한국지원사업(HK) 불교학 전공 관련 연구교수 2명을 초빙한다. 해당 전공분야는 인도불교(유식·중관)와 동아시아불교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2011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가능)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 HK연구교수 초빙기준을 충족하고, 대학 교원 임용 결정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영어·불어·중어·일어 등) 능통자 우대. 접수 기간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41) 731-3614

도법 스님, 불교평론 논문상 수상

생명 위기에 문제의식 갖고 생명평화운동 실천해와

계간 <불교평론>(편집위원장 박경준)은 '2010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도법 스님(인도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쓴 '생명평화운동과 대승불교 수행'을 선정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도법 스님의 논문이 현대문명과 신자유주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연 생태적 재앙, 극단적 양극화 사회, 인간 소외 등으로 말미암은 '생명 위기, 평화 위기, 삶의 위기'에 대해 투철한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연구논문에서 생명에 대한 지극한 외경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대승보살도의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구현하고자 실천 모델로 △생명평화회 △생명평화무니 △생명평화 100대 서울 △공동체 마을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도법 스님은 논문의 내용을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4-2008



5년에 걸친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와 생태적 지역공동체 운동이 그 예다.

심사위원회는 "도법 스님은 단순한 선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어 더욱 생명력이 느껴진다"며 "비록 본격적인 학술 논문이 아니고 논증의 논리적 정합성

이 부족하다 해도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필자의 고민이 반영돼 있으며 향후 불교운동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지성화를 일구기 위한 원력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마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신났다"며 "불교평론마당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실천되는 참된 불교와 수행의 길인 새로운 대승불교와 현대불교는 어떠한가 하는지 한국불교에 던져진 화두를 풀어내는 큰 마당으로 빛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불교평론)을 비롯한 국내 불교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심사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한편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이은은 기자

"4대강 복원하는 날 올 것"

낙동강 사진전 연 지을 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을 스님이 11월 8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낙동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조계사 나무꾼리에서 열었다.

낙동강 제1 비경으로 꼽히는 경천대 낙동강 제1 비경으로 꼽히는 경천대 낙동강 공사 구간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구간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스님은 올 연말 전문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책을 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인들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이 사업은 언젠가 재검토되고 재평가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록과 매체의 힘이다. 스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의 귀함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스님 뜻에 공감한 이상엽, 최항영, 김흥구, 최형락 등 전문 사진가 10여 명과 시민들이 1년간 힘을 보탤다. 이번 사진전 외에도 현재 지을 스님의 웹사이트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시민 사진작가들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구간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스님은 올 연말 전문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책을 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인들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외쳐도 결국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이 사업은 언젠가 재검토되고 재평가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4대강이 복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리셉션

불교신문(사장 혜자)이 11월 9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불교신문 발행인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기념사에서 "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중단을 대변하는 종교계 최고 언론으로 발전해 왔다"며 "세상과 소통하는 불교, 사회의 묵타, 불교의 등불로서 부채준 한국·일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조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신문은 1960년 1월 1일 '대한불교'를 제호로 창간된 국내 최초 불교 전문신문이다. 1979년 신군부에 의한 10·27법난 발생 후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나 1980년 12월 '불교신문'을 제호로 복간됐다. 불교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와 행적을 정리한 <불교신문 50년사(史)>를 발간했다.

한편, 조계종은 안국선원 수불 스님을 혜자 스님 후임 불교신문 사장으로 내정했다. 조동섭 기자

"의계 반환에는 일본의 과거사 인정 담겨"

조선왕실의계 반환운동 펼쳐온 김의정 회장, 해문 스님



11월 8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법당에서 김의정 조선왕실의계환수위원회 공동대표(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화재청지리찾기 운동본부 해문 스님.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계 등 반출된 우리 문화재 1205점을 돌려주겠다고 11월 8일 밝힌데 대해, 조선왕실의계환수위원회 김의정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와 문화재청지리찾기 사무처장 해문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정 공동대표와 해문 스님은 4년 여를 조선왕실의계 반환을 위해 진력

한 당사자이다.

김의정 공동대표는 "이번 의계 반환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라며 "과거사에 대한 지적 없이 2006년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과는 분명히 다른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해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계 반환은 민간 차원의 문화재 반환운동이 불가

능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 예"라며 "조선왕실의계가 반환 사실도 기쁜 일이지만, 그동안 반환을 위해 마음을 보태준 한국·일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조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계 반환은 한일 양국 국교회원과 시민단체, 남북 불교계 등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해문 스님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반환 의사를 밝힌 조선왕실의계는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총리가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협정(조약)을 만들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이들 문화재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2일 일본 에지마 고도(江島孝導·주지)가 16세기에 조성된 보물급 대형 불화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불화와 조선왕실의계 등 문화재가 되돌아와도 일본에는 6만 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더 남아있다. 조동섭 기자

진흥원, 군종교구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10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에 군포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전달식에서 "최근 연무대 군법당 불사 기금 모금이 예상 외로 잘 돼 육군훈련소 신법당은 총 건립비용 100억 중 45억원이 모금됐다"며 "군법당이 완성되면 한 번에 3500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연 10만 장병이 수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연무대 군법

당은 매주 법회에 4000명이 법당을 찾은 정도로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군포교의 근황을 설명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이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화답하고 조직사회에 대한 포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사회에 나가 가정을 꾸린 후에도 가족이 모두 불법에 귀의한다고 본다면 군포교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Buddhist University. Title: '큰 지혜로 큰 세상을 열어라'. Content: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Includes contact info: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Advertisement for Sanhwa Temple Buddhist University Cultural Lecture. Title: '三華寺 清墨 美術院 文化講座 案内'. Content: 본 삼화사 청묵미술원에서 전통문화의 인재발굴과 함께 지역 정서문화 보급에 기여코저 아래와 같이 서예, 사군자, 전각 및 古典講讀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Includes a table of lecture topics and dates.